

신지식인과 독서

이 수 상

(한국도서관협회 교육연수부장)

쟁점키워드의 브라우징

신(新)지식인! 이 용어는 98년 후반에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쟁점담론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아니 급부상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애당초 지식사회에 걸맞은 지식인으로서 지식근로자의 육성을 위한 매경(매일경제신문사)의 야심에 찬 지식프로젝트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신정부(국민의 정부)의 국정지표의 하나를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로 쟁점화 된 것이다.

이 용어가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는 1998년 12월 4일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라고 한다. 그 회의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이 '21세기형 신지식인'의 개념과 모범사례를 특별히 보고하는 자리였다. 당시 김대중 정책기획수석은 "신지식인이란 지식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거나 새로운 발상으로 업무 방식을 혁신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음식점 배달원, 파출부, 농민 등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평범하지 않는 신지식인의 사례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신지식인은 21세기 한국을 이끌어갈 핵심인물이기에 정부가 앞장서 대대적

으로 전국민 신지식인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지식인이란 키워드는 매경과 이화정보화전략연구센터(이화여대)가 공동으로 정보통신부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만들어졌다. 그 용역결과는 1998년 12월 2일 김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VISION KOREA 두뇌강국 국민보고대회>(이하 두뇌강국 보고대회)라는 형식으로 처음 선을 보인 것이다.

신지식인이 있다면, 구(舊)지식인도 있게 된다. 솔직히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신지식인운동은 구지식인의 추방과도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다. 일면 '구지식인은 물러가라 신지식인이 나간다'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줄지에 구지식인은 구닥다리, 구시대유물, 세상사 도움이 안되는 사람 등으로 전락(너무 심한 표현인가?)하는 것 같다. 반면, 신지식인은 개성이 강하고, 창조적이며, 그리고 돈도 잘버는 신세대, 희망인,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세상사와 담쌓고 지내는 처지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거대한 물결처럼 다가오는 신지식인 담론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신지식

인이 누구인가, 무엇을 겨냥한 화두인가, 나는 신지식인이 되는가, 아니면 구지식인의 범주로 들어가는가, 등등의 의문이 생겼다. 격렬한 구조조정과 변혁의 시기인 지금, 그래도 좋은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 386세대의 앞줄(나이와 학번을 따진다면)에 설 수 있는 내가 구지식인으로 판명되면 어쩌나,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내 정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걸 따지는 게 부질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밀레니엄 현상과 맞물리는 바람에 잠시나마 긴장하였던 것이다.

이 글은 신지식인이 무엇인가? 누굴 말하는가, 그럼 구지식인과 대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신지식인 비판의 요점은 무엇인지 등 그동안 신지식인에 의해 파생된 담론의 이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신지식인이라는 시사적인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자원(문헌)들의 내용을 브라우징하면서 그 쟁점을 비평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밝히건대, 이 글에서 간혹 나타나는 필자의 견해는 관련된 문헌을 분석하는 정보분석가(information analyst)로서의 입장을 전제한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서술내용은 관련 문헌들에서 나타난 각종 이미지(텍스트, 콘텍스트, 연관개념 등)를 추출하고, 이를 '인용식 글쓰기'라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신지식인의 전형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지식인이라는 신조어는 두뇌강국 보고대회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보고대회에서 신지식인이란 영어로 'homo-knowledgian'이며,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지식활동을 통해, 가치를 창조하고 자아를 실현해 가는 인류"로 정의하였다. 그런 다음 "21세기에는 국민 모두가 신지식인으로 거듭날 때 한국은 지식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대회의 발표내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매일경제 지식프로젝트팀, 『두뇌강국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1999. 김효근, 『新지식인』 매일경제신문사, 1999.) 결국 신지식인이라는 키워드를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은 김효근(이화여대 교수)이 되는데, 그는 『新지식인』이라는 책에서 신지식인을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노하우 즉, 방법지(方法知)를 체득하고 지식의 생성-저장-활용-공유 과정에 필요한 마인드(정신자세), 습관, 능력을 갖춰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는 사람"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기원을 따져보면, 신지식인은 기업경영에서 사용하는 지식근로자에서 파생되었다. 요즘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키워드의 하나인 지식경영에 부합되는 근로자라는 개념이 일반국민들에게까지 확대적용되면서 신지식인이라는 키워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두가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매경의 지식경영 프로젝트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증거이고, 두 번째는 정부측의 핵심전도사인 김태동도 "신지식인운동은 적극적으로 두뇌와 지식을 활용,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업차원에서 진행중인 '지식경영'과 같은 셈이다"(경향신문, 99-05-03)라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로서는 신지식인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간형으로까지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 '젊은일꾼'이라 불리는 미래의 정치신인으로 신지식인이 거론될 정도이니 틀

린 말은 아니다. 아무튼 정부는 새로운 발상으로 자신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창조적 공간을 신지식인의 전형으로 보는 것 같다. 이렇듯 이론적이며 추상적으로 신지식인을 언급하지 말고, 그동안 정부와 각계에서 신지식인으로 발굴된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것이 감잡기가 편할 것이다. 본인 스스로 신지식인이라 자처하지 않은 것도 같지만, 정부나 언론이 전국 방방곡곡을 수배하여 직접 발굴·소개된 신지식인이기에 그들 중 몇 명을 한자리(가상임)에 불러내어 그들이 왜 신지식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입니다.

조태훈: 나는 신지식인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의 한 명일 것입니다. TV의 인기프로에까지 불려갈 정도였으니 말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17세 때 광주에서 무작정 상경하여 신속한 자장면 배달로 성공하였지요. 지금은 나를 성공시킨 고려대 앞에서 번개외식연구소장을 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인기있는 강사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케팅분야를 강의하지요.

임권택: 나는 중3 중퇴자로서 영화관에서 잡초처럼 살아왔지요. 그러나 뼈와 살을 깎는 고통, 땀과 정성을 흠뻑 담은 영화를 만들어내어 성공했지요. '씨받이', '서편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서양영화의 아류를 벗어나려고 노력했으며, 한국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개성을 강조하려고도 했지요.

박 준: 나는 미용가위 하나로 정상이 된 인물입니다.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않았지요. 나의 성공비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미치도록 달려든 것이지요.

구천모: 공대출신이지만, 경북 안동에서 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내가 재배하는 농산물을 직거래하여 소비자에게는 1/3가격으로 값을 낮추었으며, 판매량도 두 배나 늘어났지요.

장형현: 나는 집배용 컴퓨터 정밀지도를 직접 작성, 신입 집배원이 관할 구역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였지요. 학력은 초등학교밖에 만나왔지요.

김 정: 나는 여상을 졸업하였으며, 한국사회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입니다. 회원명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시켰으며, 이처럼 정상인들보다 성실히 직장생활을 한 것이 신지식인으로 뽑히게 된 것 같습니다.

배문열: 경북 문경에서 홍화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이지요. 중간판매상을 거치는 다른 홍화재배 농가와와는 달리 인터넷으로 토종 홍화씨의 효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택배로 배달하는 방식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신지식인으로 추천하게 되었지요.

양승진: 삼성SDS에서 납품과 발주를 비롯한 정보시스템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제안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88년 입사후 현재까지 72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98년만 한 해만 하더라도 180건의 아이디어를 통해 회사가 21억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갖도록 했지요. 그래서 상금도 많이 받았습니니다.

심형래: 요즘 정부가 공인하는 간판급 신지식인이지요. 국무총리실 공보실에서 제작한 공익광고에까지 나올 정도이니 말입니다. 원래는 코미디언이지만, 영화 '용가리'의 제작자로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었지요. 사람들은 나를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으로 할리우드의 벽을 뛰어 넘

었다고들 칭찬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NHK방송은 나를 '아시아의 인물' 중 한사람으로 선정하였으며, 미국의 CNN도 나를 생방송으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홍보필름을 본 외국 영화제작자들이 '용가리'가 헐리우드의 '고질라'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 코미디가 아닌 것이지요.

블게이츠: 한국에서 나를 '신지식인의 전형'으로 꼽고 있더군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타인과의 공유를 실천해 나가는 자세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나는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며, '컴퓨터의 황제'라는 최상급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지요. 최근 몇년간 세계 최고의 갑부라는 소리도 듣고 있지요.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유급을 생각해야 할 정도의 지진이었습니니다. 그래도 엄청난 독서광으로 자랐지요. 집 근처 공공도서관에서 개최된 '여름독서캠프'에서 일등을 차지하던 책벌레였답니다. 어릴 적부터 컴퓨터에 열중하였으며, 국가장학생으로 하버드대학을 골라 입학했지만, 컴퓨터 S/W개발을 위해 중도에 그만두었습니다.

신지식인 논쟁

1999년 6월 23일 김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로 선정된 신지식인 91명과 관계자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그들은 매일경제신문, 정보통신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사람들이었다. 이 자리에서 김대통령은 "지식·정보화·문화의 시대인 21세기에는 많은 신지식인의 배출이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지식인운동을 위해 정부는 지식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과 지식·정보의 체계화 및 구조화, 지식경영, 지식

정부 운동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매일경제신문, 99-06-24)

정부차원에서는 이런 신지식인 찾기 활동이 일회성의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각에서는 그런 운동에 대한 비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신지식인 담론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상대담의 형식으로 그 동안 보도된 언론기사에서 주요 부분을 인용하면서 신지식인 논쟁을 정리하여 볼 것이다. 대담자가 발언한 텍스트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겠지만, 편의상 인용부호는 생략하였다. 이 가상대담의 참석자는 김대중(대통령), 강홍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효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도정일(경희대 교수), 임현진(서울대 교수), 조희연(성공회대 교수), 김영민(한일장신대 교수), 강영철(매경, 경제·지식부장), 심형래(영구아트무비 대표), 김효근(이화여대 교수), 김태동(청와대 정책기획수석), 홍찬식(동아일보 논설위원), 김동춘(성공회대 교수), 김성기(한일장신대 교수) 등이다. 사회자는 필자인 내가 담당하였다.

사회자: 지금까지 신지식인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탄생되었으며, 그것이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상대담은 여러 사람들을 초청하여 신지식인과 신지식인 운동에 대해 다시금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거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지에 대해 비판을 제시해 주십시오. 물론 반론의 기회도 있습니다.

김대중: 대학을 나왔건 안나왔건 실력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직종에서든지 자신이 스스로 부가가치

를 높이는 일을 하면, 훌륭한 신지식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한매일, 98-12-05)

사회자: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창조적 지식기반 국가' 건설을 실현하는데 신지식인이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강홍렬: 그렇습니다. 신지식인은 누구나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으로 터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일하는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혁신함으로써 가치를 능동적으로 창출하는 사람입니다.(대한매일, 99-05-05)

김효석: 우리 역사에서도 신지식인의 선구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신지식인의 인간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 준 집단은 다름 아니라 조선 후기 실학과 지식인과 중인 기술관 집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방법으로 실용지학(實用之學)을 연구하여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였습니다.(대한매일, 99-03-02)

도정일: 신지식인운동이 경제난 탈출 비책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기에 이렇듯저러쿵 토를 달고 나서지는 것이 심히 민망한 일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지식인은 지식인이 아니고, 그의 지식이 지식기반국가의 건설에 필요치 않다는 편견을 낳고 있습니다.(교수신문, 99-03-15)

임현진: 비판성과 사상성을 고려하지 않는 실용성 위주의 논의가 신지식인이라는 허명으로 확대될 때 지성의 변질이 올 수 있습니다.(조선일보, 99-06-04)

조희연: 과거 정권들이 추진했던 고성장주의 일변도의 이데올로기를 변용한 '신성장주의' 이데올로기를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산

업역균형 인간'에서 '지식역균형 인간'으로, 문민정부의 '신한국인' 구호가 '신지식인'으로 변형된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며, 돈만 벌면 된다는 나쁜 사회풍조를 낳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경향신문, 99-03-05)

김영민: 소위 '신지식인' 기획이란 성장의 신화가 제시하는 가장 세련된 형태의 실용주의입니다. 그것은 지식을 정보로 환원하고, 그 정보의 환전성(換錢性)에 착안해서 이른바 정보사회 혹은 '지식기반사회'에 자본주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간상을 재구성하려는 발상입니다.(뉴스플러스, 99-03-25)

강영철: 신지식인 비판은 반대를 위한 반대, 역지를 위한 역지 논리가 상당부분 있어 보입니다. 비판적 지식인도 합리적 비판을 많이 한다면 생산성이 높은 지식인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만 지식인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반지성(反知性)으로 보입니다.(매일경제, 99-04-29)

심형래: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해놓고 나서 신지식인운동을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지식인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 사회분위기를 바꾸는 효과가 있습니다.(경향신문, 99-05-03)

사회자: 신지식인라는 키워드를 주장하셨던 김효근 교수는 지금의 논쟁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근: 신지식인이 정부에 의해 부정확하게 사용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잘못 비판되고 있습니다. 나는 신지식인의 필요조건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해당분야의 방법지, 즉 당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싶습니다.(동아일보, 99-03-29)

조희연: 신지식인운동은 인본주의, 비판적 지

식을 경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돈을 벌지도 못하는 지식인은 구지식 인이냐”는 항변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은연중에 경쟁만을 부추기며 협력적 인간관계를 무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세기의 인간형이 될 수 있는가 의문입니다.(경향신문, 99-05-03)

사회자: 시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우려를 적절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동: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인이란 용어가 포함됐다고 해서 기존 지식인들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지식인이 지식인 보다 낫다는 식의 분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경향신문, 99-05-03)

홍찬식: 우리 풍토에서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지식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기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변혁의 거센 삭풍 앞에서 ‘보통 사람들’이 고뇌하는 대목의 하나입니다.(동아일보, 98-12-07)

사회자: 언제는 보통사람이 우대받는 사회라더니, 이제는 보통사람이 미래의 걸림돌이 될 듯 보이니, 사회적 가치체계에 엄청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 장단을 따라야 하는지 판단이 안서기 때문입니다. 신한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신지식인도 과거의 구호처럼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는 그 물결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자칫 우왕좌왕 하다가는 사회로부터 ‘왕따’ 당할 것 같은 불안감이 가지지 않습니다.

김동춘: 신지식인 논쟁은 인문학 또는 대학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학 바깥이 현실을 주도하는 상황입니다. 상품화사회에서 대학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물음

이 없었습니다. 최근 상황은 지적 태만함에 대한 시장의 보복입니다.(조선일보, 99-04-09)

김성기: 90년대를 ‘답론’의 시대로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수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할 만한 저작도, 깊이도 없이 유행을 좇아 다닌 것이 우리 지식인들이었습니다.(조선일보, 99-04-09)

사회자: 일면 공감할 수 있어 보이지만, 너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90년대는 지적 혼란의 시기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깊이있는 저작들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지적태만 때문에 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달리 하고픈 말이 없습니다.

김태동: 신지식인운동이 인문학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있지만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미국은 오래 전에 인문학 위기과정을 거쳤고 우리에게도 좀 늦게 온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경향신문, 99-05-03)

김동춘: 신지식인운동이 지식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 비취볼 때 한창 학업과 지적 탐구 활동에 몰두해야 할 젊은이들이 기능을 지식과 혼돈할 우려가 있습니다.(대한매일, 99-05-05)

사회자: 신지식인운동이 인문학 위기와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게 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대학을 살펴봅시다. 학생은 취업전선에서 교수는 교육연구전선에서 온통 경쟁(싸움) 뿐입니다. 그것도 약육강식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요구하는 냉정한 싸움, 살아남기 위한 생

존싸움인 것이지요. 더 이상 대학은 인문학적 전통으로 상징되는 '진리의 전당'이 아닙니다. 삭막한 지식전쟁터입니다.

신지식인 논쟁 속의 암호

앞의 가상대담을 통해 신지식인(운동)의 허와 실을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이다. 이제는 신지식인(운동) 논쟁 속에 담겨져 있는 암호를 찾아내어 해석해 볼 것이다.

첫째, 신지식인(운동)은 실용적 지식만을 우대하고 있다. 조선후기의 실학운동에서처럼 실사구시적 지식만이 개인과 국가의 살길이라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실용적 지식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논란이 생기게 된다. 개념상으로는 인문, 사회, 예술,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유용한 현장지식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외국어, 첨단정보기술, 영상분야, 기업경영 등 당장의 경제적 교환가치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다. 대학이든 학원이든 이런 영역에 사람들이 몰려드니 현실이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니 천박한 실용적 지식(천박한 실용주의), 일차원적 실용주의 또는 조악한 실용주의(김영민, 뉴스플러스 99-03-25), 지식의 상품화(박겨용, 한겨레21 99-05-03) 등과 같이 당장의 효용가치와 실용성을 극단적으로 중시한다는 비판이 생기는 것이다.

둘째, 실용적 지식의 부각에는 상대적으로 인문지식의 몰락을 가져오고 있다. 인문지식은 실용적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가상논쟁에서 언급된 인문학의 위기 현상과 연결된다. 특히 인문(사회)학자들이 신지식인 논의가 인문학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실 인문지식의 위기문제는

신지식인이 부각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다. 특히 90년대 한국 지성계의 쟁점사안 중의 하나였다. 학부제의 도입시기에 크게 부각되기도 하였다. 물론 신지식인의 등장으로 그 위기에 절명의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시민의 지적처럼 인문학의 위기는 외부에서 보다 내부의 문제가 더 클 수 있다. 그러니 그는 “지식인사회 내부의 권위주의부터 먼저 개혁하라”(뉴스플러스, 99-04-08)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셋째, 한 차원 더 높아져서 신지식인의 부각은 대학의 위기로까지 발전된다. 더 이상 대학졸업장이 지식인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소위 말하는 일류대학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이 가르쳐주는 지식 특히, 비실용적 지식(앞서 언급한 실용적 지식을 대비한 용어임)으로는 먹고사는 데 도움이 안되니, 대학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학생이나 교수들 모두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적 지식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부제의 도입시기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취직에 도움이 되는 강좌만 선호되며, 비실용적 지식은 방해요인이기에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러는 대학 자체를 몽땅 무시하고 고시공부나 사설학원에만 매달리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니 신지식인 비판에 인문학자들이 쌍수를 들고 비판(반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신지식인이라는 화두가 인문학의 위기(종말)와 대학의 몰락을 더욱 재촉시켰다고 본다. 안 그래도 학부제라는 편치에 일격을 당해 휘청거리고 있는데, 신지식인으로 결정타를 얻어맞은 격이기 때문이다.

넷째, 공적 교육영역의 붕괴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학교라는 공적교육영역에서의 교육이 무의미해질 수 있어 보인다. 특히(기능지식)는 개인의 노

력, 특히 부단히 갈고 닦는 숙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집단교육과 공공교육을 위주로 하는 학교교육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학력 파괴뿐만 아니라 학교의 몰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최소한 학력파괴, 학교무용론을 부추길 위험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신지식인으로 분류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규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정부나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그런 류의 사람들을 신지식인으로 부각시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학력이 높지만 평범한 사람, 학력이 낮고 경제력이 낮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아무튼 실용적 지식을 우선하는 것에서 공격적 교육영역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는 의식적인 차원의 암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운동의 주체의 의식 속에 계몽주의적 사고와 대립적 사고의 조장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국민들 일각의 정서를 잘도 읽어낸 혜안도 있다. 실용적 지식의 선호, 인문학이나 대학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교육의 폐해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의 정서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다.

말이 나온 김에, 신지식인운동의 선정성 문제에 대해 한마디 더 보태겠다. 그동안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며, 그 또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신지식인 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다. 특히 심형래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만에 하나 '용가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솔직히 불안감이 크다. 나 자신 '용가리'가 매우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심형래는 굉장한 사람이라고도 본다. 그런데 '용가리'를 통해 심형래를 신지식인으로 보는 데는 그 자체가 하나

의 벤처(모험)처럼 보인다. 이유는 간단하다. 아직 '용가리'가 시장에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심형래와 영구아트무비사는 광고비 하나 들지 않고 사전홍보하는 격이 되니 손해볼 리가 없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것이다. 인간이란 묘해서 기대치를 높여 놓으면, 웬만한 수준이 아니고서야 쉽게 감동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공상물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만에 하나 수준이 낮으면 실망도 아주 커지게 된다. '서편제'나 '쉬리'처럼 결과물을 가지고 서서히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하는데 말이다.

환언하여, 신지식인운동의 주체들은 너도나도 전국민들에게 신지식인이 되어라고 계몽적으로 말하고 있다. 운동 주체 자신들은 얼마나 신지식인의 범주에 드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제3자의 위치에서 신지식인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모든 국민들이 신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이 운동이 계몽적이라고 판단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창조적 지식기반의 확충'이라는 원대한 국정목표를 제시하고 하지만, 그걸 자세히 따져보면, 물질중심, H/W중심의 기반 구축이 우선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거대담론에서 미시담론으로, 구호에서 실천으로, 그리고 운동주체를 포함하는 국민 모두가 의미있는 신지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살벌한 전쟁터가 아니라 모두 함께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신지식인 구호의 이면에는 상호 불신하는 대립적인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것 같다. 특히 운동의 주체와 인문학자들간의 대립은 더욱 그렇다. 이것은 양비론적 입장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다. 상호 불신의 벽이 너무 높게 보인다는 것이다. 신지식인과 구지식인, 실용지식과 비실용지식, 인문학과 과학기술, 이러한 대립적 사고는 건전한 사회발전엔 치명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이기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더욱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는 대립적 구도가 아니라 상생(공존)의 논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합리를 따지는 이치గా 나이에 의해, 지위에 의해, 재산에 의해 좌우되지 않아야 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정성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듣기 좋은 말로서의 상생이 아니라, 다툼과 화해, 비판과 극복, 음과 양의 조화,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서구와 동양, 인문과 기술 등 모든 대립이 허용되고, 양면이 공존하고 진화하는 그런 열린 사회, 다원화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쯤에서 동아일보 기자인 이광표가 내세운 21세기 새로운 지식인상에 귀기울일 만하다. 그는 신지식인상을 '실사구시 정신으로 사회참여를 추구하는 지식인'이라 주장하였다.(동아일보, 99-03-29) 또한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다음의 6가지를 들었다: ①창조적·실용적 가치를 추구하고; ②전문성과 보편성의 조화를 이끌어 내고; ③학문의 폐쇄성을 탈피하고; ④세계문화에 대한 안목을 지니고; ⑤미국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⑥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독서하는 신지식인

사회는 각양각색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나는 이런 지식의 유형을 크게 술이부작적 지식과 실사구시적 지식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다.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상호 비판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는 특징이 있다.

술이부작(述而不作)적 지식인은 사대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형식주의, 엄숙주의 등 온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한다. 반면,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지식은 합리주의, 개방주의, 실용주의, 문화주의, 다원주의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의 지식이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지식인은 술이부작적 지식이 아닌 실사구시적 지식을 소유하고 창출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지식인 주장자들이 말하는 실용적 지식과 일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분명한 차이는 비판도 있고, 상상도 있고, 창조도 있으며, 생산성도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인문학적 지식, 사회과학적 지식, 자연기술적 지식 모두가 술이부작적 지식과 실사구시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기에 인문학에 대한 비판과 무용론이 없으며, 자연기술에 대한 맹목적 옹호도 없다. 단지 비판력을 회복하고, 상상력을 북돋아 주어, 창조적인 인간과 사회를 만들어 가는 그런 지식은 우대받고, 권위적 지식, 편향된 지식, 편법적 지식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편향된 지식만으로는 어떤 일을 도모한다면, 무모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많다. 벤처정신만로는 안된다. 빌게이츠가 기술과 모험정신만 가지고 성공하였는가. 손정의가 그랬는가. 그들의 창조력과 순발력은 단선적인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모험정신, 벤처정신 그것 중요하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높은 만큼 실패의 위험도 크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라곤, 성공한 사람들이다. 성공신화는 말하기도 좋고, 부풀리기도 좋아하며, 영웅시하는 경향도 있다.

그것도 지식사회에서의 성공신화이기에 많은 사람들로 부터 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 명의 성공인이 부각되는 데는 몰락으로 치닫는 벤처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냉정한 현실이다.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우리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의 위기는 학부제나 신지식인 등장 이전에 인문학자들 스스로 술이부작적 지식을 추구했기에 생겼다는 지적이 더 많다. 인문학의 존재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비판력이다. 그러나 그런 비판이 우리의 인문학에는 없었다. 있더라도 초침이 없는 비판, 과녁이 없는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탄지를 거는 비판이었다. 때로는 이기적이라 할 정도였다. 그러니 일반인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였던 것이다. 둘째는 상상력(창조력)이다. 고도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영역이지만, 애석하게도 한국의 인문학에는 창조적 상상력의 이미지도 거의 없다. 단지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며, 권위적이며, 고매한 상아탑, 공리주의, 엄숙주의만 만연해 있을 뿐이다. 술이부작적 지식의 모범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과학이나 자연기술과학도 무풍지대인가. 그들도 술이부작적 지식을 많이 양산하였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선진외국의 지식이라면, 앞다투어 추종하고 모방해 왔으며,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에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수많은 지식들을 양산하지 않았는가. 비판과 토론은 허용되지 않으며, 학연이 패러다임의 구분이 되는 지식인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식사(知識史)는 추종과 모방의 역사이다.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기술적 지식 모

두 해당된다. 자연기술 지식에는 창조적 과학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만큼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결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뒤지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튼 과학기술은 서양지식의 모방에 열중이었고, 인문학이나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추종하였다.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는 동양지식의 숭배도 있음이 조금의 차이가 된다.

우리의 현실(과거, 현재, 미래 모두 포함)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고, 사회문화적인 가치창출이 가능한 그런 지식이 바로 실사구시적 지식이다. 여기에는 인문학적 지식, 사회과학적 지식, 자연기술적 지식 모두가 포함되며, 때로는 학제적 지식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아무튼 우리 사회의 근대성을 회복하고, 때로는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거나 그것의 바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실사구시적 지식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도서관에서, 가정에서 일상적인 독서를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다고 하겠다.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독서광이 의외로 많다. 언론기사에서 다루어진 사람들 중 취미가 독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정도이다.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야 현실적 기준의 성공인이라 할 수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도 독서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주변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독서를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지성인(知性人)들이다.

그렇다. 나는 이런 지성인을 신지식인이라 부르고 싶다. 작금의 신지식인은 너무 세속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듯하다. 지식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독서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애들러(Mortimer Adler)가 말하는 '마음의 4가지

자산'인 <정보-지식-이해-지혜>에 주목하자. 지혜 쪽으로 갈수록 자산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 구도에서 보면, 신지식인은 <정보-지식>을 자산으로 경제활동을 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知)만 갖추면 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 된다. 지식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성(性)이 겸비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게 바로 지성(知性)이다.

그러기에 나는 <정보-지식>을 <이해-지혜>라는 정신을 소유한 전인(全人)을 '지성인'이라 하는 것이다. 지성인은 무한한 정보로부터 지식(실사구시적 지식)을 추구하고, 이것을 개인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류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실 사회가 내세우려고 한 신지식인의 실질적 콘텍스트는 이런 지성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관계자들이 너무 세속적 콘텍스트를 강조하다가 왜곡되고 폄하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게 믿고 싶다.

정리하면, 신지식인은 지성인이며, 지성인은 개인,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일상에서 '독서'를 통해 지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독서하는 지성인(신지식인)의 사례로 다음의 전유성, 서세원, 남희석을 들기로 하자. 설명의 편의로 잘 알려진 연예인을 사례로 든 것이기에,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독서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자신의 일에 지혜롭게 활용하는 사람들의 사례로 일리가 있다고 본다. 전유성-서세원-남희석은 자타가 공인하는 버벌개그(verbal gag)의 계보로 분류된다. 그들이 정확하고 순발력 있는 어휘와 언어를 구사하는 데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한데, 그들은 그 비결이 바로 독서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개그계의 신지식인으로서, 방송계에서 소문난 독서광들이다. 일간신문에 소개된 그

들의 독서형태를 살펴보자.

먼저, 전유성은 국내 최대서점인 교보문고에서 1998년 6월 1일 북클럽 개설 5주년을 맞아 회원 6만여명 중에서 '책벌레 빅5'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97년 북클럽을 통해 가장 많은 책을 구입한 5명 중의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는 '취미가 독서'라고 할만큼 대단한 독서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방송가에서 알아주는 독서광인 전유성은 녹화장을 옮겨 다니는 시간에도 책을 놓지 않는다고 한다. 승용차 안은 물론이고 집안의 화장실·거실·침실·주방 등 곳곳에 책이 몇 권씩 놓여 있어 언제든지 쉽게 들춰본다고 한다. 단지 개그 소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해온 것이라고 한다.(중앙일보, 98-05-29, 관련기사 참조)

서세원의 손에도 항상 책이 있다고 한다. 특히 웬만한 역사물은 거의 독파했다고 알려져 있다. 서세원은 독서가 "논리적인 대화 진행에 도움"이 되며, 또한 "연예인이라는 바쁜 직업 때문에 정신을 가라앉히려는 목적도 있다"고 한다.(조선일보, 99-03-06, 관련기사 참조)

남희석도 순발력의 비법은 독서이며, 버벌개그에 필수인 어휘력 확장에 독서만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동아일보, 99-03-24, 관련기사 참조)

신지식인 사서와 독서

최근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캠페인으로 '전국민책읽기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이 책읽는 것까지 정부가 꼭 나서야 하겠느냐 하는 비판이 없지 않으나, 우리 국민들은 책안읽기로 유명하니 일견 이해할 만 하다.

비판하는 사람이야 정부가 뭐라고하지 않아도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읽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책읽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습관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만의 독특한 교육풍토에서 기인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책만 꾸준히 읽어서는 당장의 이익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책읽자는 캠페인이 벌여졌으니, 책을 읽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니, 도서관은 독서운동의 순수한 의도를 살려내어 실천적인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을 해야 한다. 사실 도서관활동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독서활동을 진흥하는 것이 아닌가. 독서를 통해 전국민의 지적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도서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사서(사서교사)는 예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진지하게 독서진흥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독서를 통해 국민들의 일상이 지적생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적생활은 꾸준한 독서를 통해 실사구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지성적인 것을 말한다.

정부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들의 독서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독서진흥 기법을 개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천박한 실용지식만으로, 맹목적 기술지식만으로, 배타적 첨단지식만으로, 인기나 유행에 따르는 지식만으로 신지식인이 되는 옳지 않은 사회풍조를 바꿀 수 있다. 나는 독서를 통해 실사구시적인 지식을 축적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지성인이라면 그들 모두를 신지식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고급지식이 아니라도 좋다. 첨단지식이 아니라도 좋다. 졸부근성의 천박함, 권위주의, 엄숙

주의, 폐쇄주의를 극복하고 건전하고 개방적인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되도록 하는 지식이면 충분하다.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이면 금상첨화가 된다. 사실 건전하고 개방적인 지식은 그것 자체로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환경보호, 교통질서, 불신해소, 양심지키기 등이 자연스럽게 되는 지혜로운 지식이라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부와 영광을 가져오기에 충분하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서관과 사서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하겠다. 스스로 실사구시적 지식을 갖추어 국민들을 위한 독서자원(적합독서서지)을 개발하고 보급하며, 아울러 다양한 독서지도(독서상담과 치료), 정보조사와 제공 등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의식만으로는 이런 일을 잘 할 수 없다. 사서들 자신들도 <신지식인 사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지식인 사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사서들의 임무는 전국민의 신지식인화에 산실역할을 해야하며, 그들 자신도 꾸준한 독서를 통해 실사구시적 지식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신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 나라가 도서관 온 국민이 지식인”. 이것은 요즘 국립중앙도서관 건물에 걸려있는 대형 걸개에 있는 말이다. 이 시대 도서관과 사서들이 추구해야 할 사명이 아닌가.